

麻木의 형상의학적 治療

강경화 · 손재익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Treatment of Numbness in Hyungsang Medicine

Kyung Hwa Kang, Jae Ik Son,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is thesis makes a review of symptoms and cause of the numbness in the literature. clinical case are studi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Hyungsang of the patients.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In case of Dam type persons, numbness is mainly caused by Fire with blood deficiency and so cured by tonifying the Jung and blood. In case of Bang Kwang type persons. it is generally caused by the deficiency of Ki and damp-phlegm and treated by reinforcing Ki and removing dampness. Persons of Jung and Hyal types are apt to be afflicted with numbness of deficiency symptoms which can be cured by tonifying the Jung and blood. Those of Ki and Shin types are inclined to get numb from the congestion and stagnancy and so treated by promotion the flow of Ki, dispelling stagnancy, resolving phlegm and promoting digestion. Numbness is common to the old people and women. The deficiency of blood and primordial energy is a cause of old people's numbness. Women get numb due to the pent-up feelings and emotional disturbance. The function disharmony of five Jang and six Bu makes the body lose the control of heat and cold or deficiency and excessiveness, which can be a cause of numbness. Especially the deficiency of the spleen results in numbness. When the special parts of the body become numb treatment must be decided after due consideration on which of the Jang and Bu or meridians is related to that affected area. In case of person with six meridian types. unbalance of Ki and blood leads the six atmospheric influences(wind, cold, heat, dampness, dryness and fire) get into the body through the most developed meridian and brings in numbness.

Key words : Hyungsang, numbness, Bang Kwang, Dam, meridians

서 론

麻木은 肌膚, 肢體에서 麻를 發하고 甚하면 전혀 痛痺을 모르는 疾患으로 古典醫書에서는 여러 가지 名稱으로 記載되어 《黃帝內經》에서는 不仁, 《諸病源候論》에서는 不仁, 頑痺, 頑木, 鍼刺不痛, 《壽世保元》에서는 麻痺라고 하였으며 後世에서는 頑麻라고도 稱하였다¹⁾. 《內經》에 가로되 '病이 오래 되면 깊이 들어가 營衛가 잘 돌지 못하고 經絡이 때로 疏通이 되므로 아프지 않으며, 皮膚가 營養을 받지 못하므로 不仁한다' 라고 하였다. 대체로 不仁하다는 것은 온몸이나 팔다리가 점차 麻木되어서 아프고 가려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노끈으로 꼭 매었다가 막 풀어놓았을 때와 같은 것이다. 옛 醫書에서 있는 麻痺란

바로 이것이다.2) 麻木의 原因에 대해서 朱丹溪는 '麻는 氣虛한 證이요 木은 濕痰과 死血에 起因하는 證이며 따라서 麻나 木이니 하는 證은 不仁證을 돌로 나눈 셈이다3)' 라고 하였다. 또한, 唐·宋 時期에 《千金方》, 《外臺秘要》, 《聖惠方》, 《三因方》 등의 책에서는 '不仁'은 痺證, 中風, 脚氣, 痿證 등의 여러 疾患에 나타나는 一個症狀이라고 하였고 《諸病源候論》에서는 不仁이 癱病의 初期의 主要症狀이라고 하였다⁴⁾.

이와 같이 麻木은 臨床에서 單獨症狀으로 오기도 하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의 일개 증상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에 저자는 麻木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형상의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그 치료를 형상에 따른 분류와 병인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여 形色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동 산 2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ongeui.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3/05/09 · 수정 : 2003/06/13 · 채택 : 2003/07/18

1) 症狀鑑別治療, p. 785
2) 對露東醫實錄, p. 734
3) 上揭書, p. 380
4) 慶山大學校 韓醫學部 第 8期, 痺證(關節系疾患)

脈證의 합일을 통한 진단 및 치법으로 얻은 임상례를 발표하는 바이다.

본 론

1. 麻木의 文獻의 考察

《內經》의 많은 篇에서 “不仁”이라는 症狀은 기재되어 있으나 “麻木”이라는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⁵⁾ 《內經》에서는 不仁의 病因, 病機를 營衛之氣不行으로 認識했다.⁶⁾

漢代에 張仲景《金匱要略 中風歷節脈證并治》 篇에서는 風邪中絡하여 “皮膚不仁”을 이룬다고 하였고 《血痺虛勞脈證并治》 篇에서는 血痺는 外證이 “身體不仁”한 것이라고 하였다.

隨代에 巢元方《諸病源候論 風不仁候》에서는 “不仁”이 “營氣虛 衛氣實 風寒入于肌內 使血氣行不宣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고, 《諸癩病候》에서는 “不仁”이 癩病의 初期의 主要 症狀이라 했다.

唐, 宋 時期에 《千金方》 《外臺秘要》 《聖惠方》 《三因方》 등의 책에서는 前人의 말을 모아서 不仁은 痺證, 中風, 脚氣, 痿證 등의 여러 疾患에 나타나는 一個 증상이라고 하였다.⁷⁾ 麻木 이란 말은 唐·宋의 책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許叔微의 《本事方 卷一》에서는 “風熱盛歷節 攻手指 作赤腫麻木”이라 한 것이다.

金·元의 時期에 麻木의 病因, 病機, 治法에 대해서도 많은 學파들의 주장들이 나왔다. 이 시기의 저서에서는 처음에는 “麻木”이라는 單語가 “不仁”으로 대체되고 或은 合하여 “麻木不仁”으로 불렀다.⁸⁾

張子和의 《儒門事親 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二》에서는 麻木을 모든 痺證의 공통증상이라 인식했다.⁹⁾

李東垣의 《蘭室秘藏》중에서 麻木은 氣虛로 인해 일어난다고 인식했다.¹⁰⁾

朱丹溪는 麻는 氣虛로 인해 일어난 것이고 木은 濕痰死血이 血脈과 經絡을 막아 이룬 것이므로 治療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에 집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明代以來로 諸家의 著書에는 麻木이 獨立된 病名으로 쓰여졌고 丹溪의 말을 따라서 麻木을 구분했다.¹¹⁾

2. 麻와 木의 구분

대개 麻는 痺와 같아서 비록 痛하고 癢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나 오히려 氣가 약간 流行하여서 손에 있으면 많이 風濕을 兼하고 발에 있으면 많이 寒濕을 兼하게 되고 木은 痛과 癢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氣도 또한 運行하지 못한다.¹²⁾ 麻와 木의 原因에 있어서 《醫學入門》에서는 ‘麻屬氣虛 木痰瘀’라하여 대체로 麻는 氣虛에 屬하고 木은 濕痰과 瘀血에 屬하는 것이라고 했다.¹³⁾

3. 麻木과 榮衛運行과의 關係

1) 榮衛의 概念

(1) 榮氣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되어 풍부한 營養物質을 含有하고 血脈中에 분포하며 全身을 순환하면서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榮氣이니 이는 곧 營養之氣라는데서 얻어진 명칭이다.¹⁴⁾ 榮氣는 血과 함께 脈中을 運行하면서 兩者 공히 全身을 營養하는 作用을 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榮氣가 化生하여 血이 되기도 하는 등 相互 不可分의 關係에 있기 때문에 보통 榮血이라고 併稱하는 예가 많다.

(2) 衛氣

이 역시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되어진 人體 陽氣의 일부분으로서 “衛陽”이라고도 한다. 衛氣의 성질은 《素問 痺論》에서 “衛者, 水穀之悍氣也”라고 한 것처럼 標疾滑利한데 이는 신속하게 運行하고 活動력이 강하며 脈外를 游走하여 全身에 두루 미친다는 뜻이다. 또한 그의 機能에 관하여 《靈樞, 本藏篇》에서는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라 했으니, 이는 衛氣가 皮膚, 肌肉, 腠理를 따뜻하게 하고, 皮毛를 윤택하게 하며, 汗孔의 開闔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肌表를 보호하고 外邪를 방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衛氣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2) 榮衛의 運行

榮氣가 도는 것은 太陰으로부터 시작하여 足厥陰에 이르러 全身의 一周를 마치는 것이다. 그의 一周하는 것을 상술하면 밖으로는 身體와 四肢에 이르고 안으로 五臟, 六腑에 이르기까지 周遍하지 않는 데가 없는 고로 그 五十周라는 것이 晝夜나 陰陽과 다른 것이 없지만 衛氣가 도는 것은 그와 달라서 낮에는 다만 身體와 四肢 밖의 陽으로는 運行하고 五臟六腑의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밤에는 五臟六腑의 안에서 陰氣를 돌게 하며 身體와 四肢의 밖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十周를 마치면 반드시 아침에 榮氣와 함께 肺와 手太陰에 모이게 된다.¹⁵⁾ 衛氣

5) 예를 들면 《靈樞 壽夭剛柔篇》에서 “寒痺之爲病也 留而不去 時痛而皮不仁.”라 하였고 《素問 痺論》에서 “痺在于骨則重 在于血則凝而不流 在于筋則屈不伸 在于肉則不仁 在于皮則寒.”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不仁”은 즉 皮頑하고 皮膚에 感覺이 없다는 뜻으로 세속에서 말하는 “麻木”이라는 것이다.

6) 《素問 痺論》에서 “其不痛 不仁者 病久入甚 營衛之行 經絡時疏 故不通 皮膚不榮 故爲不仁” 《素問 逆調論》에서는 “營氣虛則不仁 衛氣虛則不用 營衛俱虛則不仁 具不用”라고 하였다.

7) 《千金方》에서 或 “不仁”은 “頑麻”가 된다고 했는데 中風, 痺證 등의 病에도 “半體不仁” 혹은 “四肢不仁”을 표현했고 또 “風邪走注皮膚中如蟲行”, “皮中動淫淫 如有蟲味”라는 표현이 있다.

8) 예를 들면 劉河間《宣明論 諸痺證》에서 “痺乃風寒濕三氣相合…或走注四肢 皮膚不仁 屈伸不便.”

9) “夫痺之狀 麻木不仁 以風寒濕三氣合而成之.”

10) “如繩縛之久 釋之覺麻作而不敢動 良久則自己 以此驗之 … 乃氣不行.”라 하였는데 治療에 있어서는 “補其肺中之氣 則麻木自去矣.”라는 理論에 根據하여 治療하였다.

11) 《醫學入門 卷四 痺風》에서는 “蓋麻猶痺也 雖不知痛癢 尚覺氣微流行

… 木則非唯不知痛癢 氣亦不覺流行也.”라 하였고 葉文齡 《醫學統旨》에서는 “麻爲木之微 木爲麻之甚.”라 하여 더욱 明確히 區分하였다.

12) 國譯增補東醫寶鑑, p. 531 痺病이 대개 麻木를 兼하는 경우

13) 國譯編註醫學入門Ⅳ, p. 209 麻屬氣虛 木痰瘀 此概言耳 有因虛而風寒濕三氣乘之 麻木併作者有氣血俱虛 但麻木不木者 蓋麻猶痺也 雖不知痛癢 尚覺氣微流行. 在手多兼風濕 在足多兼寒濕 木則非唯不知痛癢 氣亦不覺流行. 常木爲痰血調氣 間木爲濕痰. 總皆經絡凝滯 血脈不貫 謂之不仁 或兼虛火 則肌肉頑動 不可誤作風治

14) 《素問, 痺論》에서 “營者, 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臟, 流瀦於六腑,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貫五臟六腑也”라고 하였다.

15) 國譯增補東醫寶鑑, p. 27 榮과 衛의 運行이 서로 다른 경우

의 行度가 一晝夜에 몸을 五十回 도는데 낮에는 二十五回를 陽으로 돌고 밤에는 二十五回를 陰으로 돈다.¹⁶⁾

3) 麻木과 榮衛運行

衛氣가 運行하지 않으면 麻木이 된다. 눈을 뜨면 陽道가 運行하고 陽氣가 全身에 遍布하며, 눈을 감으면 陽道가 닫히고 運行하지 않는 法이 마치 晝夜의 別과 같으니 陽이 衰하고 陰이 旺盛한 것을 알 수 있는 法이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또한 麻木을 깨달으니 그것은 氣가 運行하지 않아서 그러한 法이므로 肺中의 氣를 補하면 麻木이 스스로 없어진다. 肌肉이 麻痺한 證은 반드시 榮氣를 瀉해야만 낫는다.¹⁷⁾

이렇게 晝夜의 가름질이 잘 안 될 경우에 榮衛의 病이 오는데 이러한 要因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볼 수 있다. 첫째, 나이를 먹으면 노인네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老化로 인하여 榮衛가 運行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吐瀉를 많이 해서 津液이 枯竭되면 虛煩해서 榮衛가 運行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셋째, 麻木에서 중요한 것은 手術을 받거나 濕痰과 死血로 인해서 榮衛가 運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七情六鬱로 인해서 經絡의 氣가 滯해서 榮衛가 運行되지 않아도 手足에 麻木이 생기게 된다. 다섯째, 衛氣가 虛해서 榮衛가 行하지 못하기 때문에 麻木이 온다.¹⁸⁾

4. 麻木과 聯關된 疾患의 경우

臨床上 麻木은 單獨症狀으로 오기도 하고 다른 疾患의 一個 症狀으로 오기도 하는데 특히 痿證, 痺證, 脚氣, 中風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痿證은 五臟精血 虧損으로 筋脈, 經脈 등을 營養하지 못해서 經脈失養한 것으로 萎弱不用한 것이다.¹⁹⁾ 手足軟弱無力, 肢枯瘦削이 주요 臨床特徵이고 甚한 者는 手不能握物, 足不能任地하나 단, 肢體關節이 일반적으로 不痛하고 또 흔히 下肢에서 多發한다. 痺證은 人體의 肌肉, 經絡이 外邪의 침해를 받거나 안으로 風寒濕에 傷하여 氣血運行不利하여 肌體, 關節 등의 부위에서 발생된 疼痛, 酸楚, 重着, 麻木, 關節腫脹, 屈伸不利 등의 運動障礙 및 感覺異常을 나타내는 일계열의 症狀을 말한다. 《內經》에 가로되 '虛邪가 사람에 的中할 때에 留하고 가지 않으면 痺가 되고 衛氣가 運行하지 않으면 不仁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河間이 가로되 '着痺란 증은 留着해서 流動하지 않고 四肢가 麻木하며 拘攣하는 症이다'라고 하였다. 脚氣는 壅塞한 病으로 脚氣의 外症은 꼭 傷寒과 비슷한데 다만 처음 시작할 때에 脚膝이 軟弱하고 頑痺하고 轉筋하고 赤腫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脚氣의 症勢가 발에서 일어나지마는 全身에 周流하여 여러 症狀²⁰⁾이 나타나는

데 足의 六經에 전하면 外症이 傷寒과 비슷하나 다만 痺에 脚痛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²¹⁾ 中風에서도 麻木이 나타나는데 특히 中風의 遠因의 경우에서 "大拇指와 次指가 麻痺하여 不仁하거나 或은 手足이 힘이 적거나 혹은 肌肉이 약간 당기는 것은 다 中風의 遠因이며 三年 內에 반드시 大風이 發作하는 것이니 미리 營衛를 조절하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²⁾

5. 麻木의 분류

1) 形象에 따른 분류

形象醫學은 '存在 그 자체를 病'²³⁾으로 보기 때문에 麻木疾患이라도 각 個人의 形態, 色, 脈, 症狀에 따라 治法과 處方이 달라진다. 形象醫學에서는 人體를 膽體와 膀胱體, 精氣神血, 男女老少, 五臟六腑, 外形, 六經形을 통해서 疾病을 診斷하고 治療한다.

(1) 膽體와 膀胱體

形象醫學에서는 사람을 膽體와 膀胱體로 나눈다. 膽體는 陰陽으로 볼 때는 陽盛陰虛하고 氣血로 볼 때는 多氣少血하다. 膀胱體는 陰陽으로 볼 때는 陰盛陽虛하고 氣血로 볼 때는 少氣多血하다.²⁴⁾ 膽體의 病理는 血虛有火이고 膀胱體의 病理는 氣虛濕痰이다.²⁵⁾

(2) 精氣神血

精氣神血은 頭와 耳目口鼻의 형태로써 존재물의 씨앗 즉 種子²⁶⁾에 해당하고 ○ □ ▽ △ 의 4가지²⁷⁾ 圓方의 모양으로 나뉘어진다. 精氣는 集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漏泄하여 病이 오고, 氣科는 散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氣가 鬱滯하거나 또는 너무 散하여 氣虛하여 病이 오고, 神氣는 定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七情이 鬱結하거나, 痰火로 病이 오고, 血科는 包해야 하는데 血이 未包하여 새서 病이 오거나 瘀血로 病이 온다. 圓方의 屬性은 圓은 動하는 것을 주로 하고 方은 靜하는 것을 주로 하므로 精血科는 虛證이 오기 쉬우므로 補精, 補血, 補氣가 基本 治法이 되고 氣神科는 鬱滯에 起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行氣, 解鬱, 化痰, 降火, 消導하는 것이 基本治法이 된다.

(3) 男女老少

男女老少는 人間 存在의 四大形態로서 남자의 形象은 黑長肥剛²⁸⁾하며 그 性情은 發散性으로 燥²⁹⁾하며 이목구비중의 코가 발달되어 마시는 것을 좋아하며 五臟으로는 精을 爲주로 하니 腎이 中心이 된다.³⁰⁾ 여자의 形象은 白短瘦柔하며 그 性情은 收斂性으로서 濕하고, 입이 발달되어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하며, 血을 爲주로 하므로 胃가 中心이 된다. 老人은 津液이 말라가고 血이 衰弱하며 元氣가 虛하므로³¹⁾ 老化로 因하여 營衛가 運行되지 않아 麻木이 온다.³²⁾

16) 國譯增補東醫寶鑑, p. 26 衛氣의 行程의 경우

17) 國譯增補東醫寶鑑, p. 380 麻木의 경우

18)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Ⅵ, p. 398

19) 國譯增補東醫寶鑑, p. 410 痿病의 原因의 경우, 痿病을 治療하는 경우

20) 或은 壯熱頭痛하고 或은 百節이 拘攣하며 或은 十指가 走往하고 或은 轉筋하여 急痛하고 或은 小腹이 不仁하며 甚해지면 가슴이 가득하고 喘急하며 煩悶하고 怔忡하고 昏暈하고 羞明하며 腹痛하고 下痢하며 痰涎을 嘔噦하고 食臭를 싫어하고 大小便이 秘澀하며 腿로부터 膝에 이르기까지와 脛으로부터 踝에 이르기까지 屈弱하고 頑痺하고 掣急하며 痠痛하고 或 熱하기도 하고 熱하지 않기도 하며 或 腫하기도 하고 腫하지 않기도 하는 것 등이 모두 다 그 症勢이다.

21) 國譯增補東醫寶鑑, p. 406 脚氣의 症勢의 경우

22) 國譯增補東醫寶鑑, p. 509 中風의 遠因의 경우

23)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379

24)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57

25)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138

26)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311

27)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403

28)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57

29)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248

30)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p. 47

31) 國譯增補東醫寶鑑, p. 81 老化는 血의 衰弱

(4) 五臟六腑

五臟은 精神, 血氣, 魂魄을 간직하여 滿而不實³²⁾하고 六腑는 水穀을 消化해서 津液으로 만들며, 實而不滿³⁴⁾한다 하였으며, 五臟病은 虛實證이 主가 되고, 六腑病은 寒熱證이 主가 된다. 五臟六腑는 기능상 皮肉脈筋骨을 主管하고 五臟六腑의 不和로 寒熱虛實이 조절되지 못하면 麻木이 발생한다.

(5) 六經形

12經脈은 手足 三陰三陽으로 구성되며 각각 氣血多少가 다르다. 六經形은 氣血의 多少에 따른 類形을 말하며 눈코의 昇降의 氣勢와 顔面의 돌출되고 함몰함에 따라 氣血의 多少를 판단한다. 각각의 形象은 太陰形은 눈↓코↓(여자는 太陽形으로도 봄), 太陽形은 눈↑코↑(여자는 太陰形으로도 봄), 少陰形은 눈↑코↓(남자의 기본형), 少陽形은 눈↓코↑(여자의 기본형)이며 陽明形은 前面의 발달형이고 눈이 튀어 나오고, 厥陰形은 눈이 들어가고 함몰형이다. 각 형에 따른 氣血의 多少關係는 陽明은 多氣多血, 太陰·少陰·少陽은 多氣少血, 太陽·厥陰은 多血少氣이다. 이러한 氣血의 偏差로 因하여 六經病은 外部의 風寒暑濕燥火의 六氣가 人體에 侵入할 때 각각 그 발달된 經絡을 따라 人體에 침입하여 發生한다.

(6) 外形

外形에 따른 麻木疾患은 手足, 手指, 肌肉, 面, 口舌, 腹皮 등의 특정부위에 麻木이 발생한다. 이때에는 臟腑나 經絡의 연계에 따라 原因을 찾아 治療를 한다.

2) 病因에 따른 분류

內因으로 因한 것은 飲食傷으로 인한 內傷과 痰火, 濕痰과 死血, 積聚에 인한 것 등이 있고, 外因으로 인한 것은 風寒暑濕燥火를 排除하지 못하여 發生하며 不內外因으로 인한 경우는 수술로 인해 營衛가 運行하지 않아 麻木이 발생한다.

6. 麻木의 臨床例 및 考察

1) 形象에 따른 분류

(1) 臍體, 膀胱體에서 오는 麻木疾患

· 문 ○○, 남자 58세

[來院日] : 2001년 4월 23일

[形色] : 臍體, 筋骨形, 面赤하며 火性을 띠었다.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있다.

[脈] 62 腎 - 三焦 心

> 膀胱 <

59 肺 - 膀胱 腎

[症狀]

- ① 兩 무릎 밑으로 저린지가 4개월 되었다.
- ②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 피곤하고 허리가 좋지 않다.
- ③ 식사는 잘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

[處方] : 滋血養筋湯³⁵⁾

[考察] : 臍體의 病理는 血虛有火이다. 이 환자는 面赤하니 濕

熱이 있어 濕熱이 氣血을 損傷시키므로 下肢에 麻木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養血 하고 除濕 하는 滋血養筋湯을 處方함.

[經過] : 1제 服用 후에 다리저린 것이 없어지고 잠도 잘 오고 피로도 훨씬 덜 해졌다.

· 김 ○○, 여자 56세

[來院日] : 2001년 3월 30일

[形色] : 膀胱體, 肥白하고 배가 나와 있다.

[脈] 80 胞 - 胃 肝

> 膽 <

81 脾 - 小腸 肺

[症狀]

① 2000년 8월에 右病左斜로 四君子湯 合 二陳湯 加 竹瀝·薑汁·白芥子³⁶⁾ 하여 治療받은 환자이다.

② 현재도 右側 脗의 감각이 조금 좋지 않고 왼팔이 팔꿈치 밑으로 저리고 아프다.

③ 속이 미식거리고 헛배가 부른다.

④ 잠이 잘 안 오고 허리 다리가 좋지 않다.

[處方] : 六君子湯³⁷⁾

[考察] : 膀胱體의 病理는 氣虛濕痰이다. 肥白하니 胃氣가 나빠서 麻木이 온 것이다. 또한, 얼굴은 右側病 이고 팔은 左側病이니 胃氣가 나쁜 것이다. 奇經八脈, 즉 胃氣를 좋게 하는 것이 六君子湯이다. 또한, 面病은 胃에 屬한다.³⁸⁾

[經過] : 5월 12일 來院 하여 팔 저리는 것이 많이 좋아짐. 요즘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여 六君子湯 加 黃芪 1錢半, 酸棗仁炒 3錢³⁹⁾을 處方함. 8월 14일 來院 하여 헛배가 많이 부르고 팔이 저린다고 하여 六君子湯을 2제 투여하여 많이 好轉되었다.

(2) 精氣神血로 오는 麻木疾患

· 최 ○○, 여자 42세

[來院日] : 2001년 5월 29일

[形色] : 臍體, 氣科, 鼻爲主, 목소리가 허스키 하다.

[脈] 70 脾 - 小腸 肝

> 膽 <

72 胞 - 胃 肺

[症狀]

- ① 兩 손목 밑으로 저리고 아픈데 잘 때 심하다.
- ② 허리가 아프며 생리 때가 심하다.
- ③ 梅核氣가 있으며 현재 감기끼가 있어 기침을 조금 한다.
- ④ 속이 미식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으며 가끔 下腹痛이 있다.

[處方] : 開結舒經湯⁴⁰⁾

[考察] : 氣科 여자는 氣가 鬱滯하기 쉽다. 脈이 臍이니 七情六鬱로 인하여 經絡의 氣가 滯해서 榮衛가 運行되지 않아 麻木이 생기게 된 것이다⁴¹⁾. 梅核氣⁴²⁾와 痰飲증상⁴³⁾과 감기끼가 있으니

32)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 p. 398

33) 國譯增補東醫寶鑑, p. 137

34)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p. 311

35) 國譯增補東醫寶鑑, p. 412

36) 國譯增補東醫寶鑑, p. 521

37) 國譯增補東醫寶鑑, p. 109

38) 國譯增補東醫寶鑑, p. 240

39) 國譯增補東醫寶鑑, p. 77

40) 國譯增補東醫寶鑑, p. 381

41)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 p. 398

42) 國譯增補東醫寶鑑, p. 321

上記 處方을 투여함.

[經過] : 6월 15일 來院 하여 脈이 66 - 70으로 나오고 兩 손목 밑으로 아프지는 않고 약간 저리며 諸般 증세가 好轉되어 上記 處方을 다시 투여함.

·정 ○○, 여자 43세

[來院日] : 2001년 1월 15일

[形色] : 膀胱體, 陽明 氣科로 靨骨이 발달하였으며 피부색이 검다. 목이 약간 부어있다.

[脈] 82 胞 - 胃 肝
 > 膽 <
 84 脾 - 小腸 肺

[症狀]

① 아침에 자고 나면 兩손이 붓고 뻣뻣하고 손이 굳는 느낌이 들고 저리고 아프다.

② 항상 감기끼가 있고 가끔 寒氣도 든다.

③ 梅核氣가 있으며 왼쪽 귀에 耳鳴이 있다.

④ 가슴이 답답하고 痔疾이 있으며 잠이 깊지 않다.

[處方] : 香蘇散 加 麻黃·桂枝·羌活·白芷·木瓜 各 1錢⁴⁴⁾

[考察] : 이 환자는 陽明, 氣科로 氣가 實한 여자로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氣가 經絡에 滯하여 麻木이 온 것이다. 耳病도 左右 구별이 있으니 右 耳聾은 남자에게 많이 있으니 色慾이 많기 때문이고, 左 耳聾은 婦人에게 많이 있으니 忿怒가 많기 때문이다⁴⁵⁾. 香蘇散은 解鬱시키는 대표적인 處方으로 12經脈을 運行시켜주는 대표적인 藥이다⁴⁶⁾. 麻木은 經絡病이다.

[經過] : 3월 12일 來院하여 손이 붓는 것이 많이 덜해지고 아프고 저린 것도 현저히 好轉됨. 上記 處方을 투여함. 7월 21일 來院 : 麻木 증세는 거의 없어지고 上記 증세들이 모두 好轉되었으나 痔疾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하여 加味香蘇散⁴⁷⁾을 투여함. 8월 7일 來院 : 그 동안 麻木 증세와 감기 증세가 거의 없었다가 요 근래에 집에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후로 다시 증세가 왔다고함. 皮門의 香蘇散 加味方을 투여함. 9월 18일 來院 : 消化가 안되고 가슴이 답답하며 痰飲 증세를 호소하여 六鬱湯을 투여. 9월 29일 來院 : 증세 好轉이 없음. 麻木과 감기 증세가 조금 있어 다시 香蘇散加味方을 투여함. 10월 20일 來院 : 답답한 것과 消化不良이 많이 개선되고 麻木 증세는 거의 없어짐. 香蘇散加味方을 투여함.

·김 ○○, 여자 45세

[來院日] : 2000년 1월 27일

[形色] : 膽體, 太陽形, 氣科 (卯酉形)

[脈] 90 心 - 膽 肝
 > 膽 <
 90 肝 - 大腸 肺

[症狀]

① 右手가 저린데 밤에 잘 때가甚하다.

② 손과 발에 땀이 나지 않고 主婦濕疹이 심하다.

③ 小便을 자주보고 小便을 참지 못하는데 피곤하면 오줌상태가 자주 온다고 한다.

④ 가끔 미식거리기도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다.

[處方] : 八物湯 加 黃芪·黃芩·牛膝·虎杖根 各 1錢⁴⁸⁾.

[考察] : 남자는 心肺가 强하고 肝腎이 弱하며, 여자는 心肺가 弱하고 肝腎이 强하다. 氣科는 氣의 鬱滯 또는 氣虛에 의해서 麻木이 오는데 이 환자는 氣鬱로 보면 行氣香蘇散⁴⁹⁾을 處方해야하나 현재는 虛損하여 氣가 虛하여 成淋된 것으로 보고 心肺기능을 돌구어 주기 위해서 八物湯을 處方함.

[經過] : 2월 20일 來院 : 손 저리는 증세가 好轉되었고 주부습진이 눈에 띠게 좋아지고 피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上記 處方을 1제 투여함. 3월 10일 來院 : 麻木感이 없어지고 주부습진이 거의 없어졌다. 小便보는 것이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조금 그럴 때가 있다고 하여 上記 處方을 1제 투여함.

(3) 男女老少에 따른 麻木疾患

·유 ○○, 여자 35세

[來院日] : 200년 6월 27일

[形色] : 膽體, 黑

[脈] 62 肝 - 大腸 心
 > 膀胱 <
 62 心 - 膽 腎

[症狀]

① 兩 팔이 저리다.

② 痰飲 증상이 있고 消化가 조금 덜된다.

③ 生理가 조금 빨리 오고 허리다리가 좋지 않다.

④ 帝王切開로 分娩하였다.

[處方] :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白芥子 各 1錢 加 竹瀝·薑汁⁵⁰⁾

[考察] : 順男 順女는 남자는 黑長肥剛하고 여자는 白短瘦柔하다. 여자가 남자 같거나 남자가 여자 같을 때 痰飲이 생기며 12經絡에 濕痰이 停滯되어 疏通이 안되어 麻木이 될 때 二陳湯⁵¹⁾을 사용하는데 여자에게 二陳湯을 주는 이유는 여자는 12經絡의 集體이기 때문이다. 또한, 四物湯 合 二陳湯은 精血을 돌구는 약으로 皮膚呼吸을 시켜주고 아랫배를 돌구어 주는 약이다. 남자는 五臟六腑를 爲主로 해서 만들어졌고 여자는 12經脈을 爲主로 해서 만들어졌다. 上記의 二陳湯 合 四物湯은 十二經脈을 運行하는 處方이다⁵²⁾.

·노 ○○, 여자 54세

[來院日] : 2001년 10월 23일

[形色] : 膀胱體, 陽明, 코에 주름이 있다.

[脈] 68 脾 - 小腸 肝
 > 膽 <
 68 胞 - 胃 肺

43) 惡心, 嘔吐, 頭眩, 心悸, 寒熱往來, 流注作痛, 腹鳴, 小便不利, 小腹痛 등 痰飲諸疾을 말한다.

44) 上掲書, p. 380, 麻木의 경우; 手足의 麻痺는 濕으로 인한 證이니 香蘇散 加味方을 쓴다.

45) 上掲書, p. 282, 귀가 어두운경우

46)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p. 7

47) 國譯增補東醫寶鑑, p. 442

48) 國譯增補東醫寶鑑, p. 179 氣淋

49) 國譯增補東醫寶鑑, p. 341 積心痛

50) 國譯增補東醫寶鑑, p. 380 麻木의 경우

51) 國譯增補東醫寶鑑, p. 109 痰飲을 治療하는 藥物

52) 國譯增補東醫寶鑑, p. 380 麻木의 경우

[症狀]

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손가락 관절과 발가락 관절과 兩膝 以下로 좋지 않다.

② 피로하고 上熱感이 가끔 있으며 입이 마른다.

③ 평상시에 식사를 잘 하며 더위를 참지 못하고 성격이 좀 급한 편이다.

[處方] : 人蔘養榮湯⁵³⁾ 가 知母·黃柏 各1錢

[考察] : 나이가 50대 이면 肝氣가 衰할 時期이다⁵⁴⁾. 潮熱이 있으면 體內的 津液이 마르기 때문에 뼈마디가 아프고 쉽게 피로해진다. 이 환자의 手足麻木은 潮熱로 因한 것이며 또 陽明型은 多氣多血하며 肝이 虛해지기 쉽고 특히 이 患者는 코에 주름이 있으니 虛勞로 因한 潮熱로 판단하여 氣血이 함께 虛한 熱은 升陽과 滋陰을 兼用해야하니⁵⁵⁾ 上記 處方을 투여함.

[經過] : 11월 6일 來院 : 손가락 關節의 痛症은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발가락의 關節痛症이 남아있다고 하여 上記 處方을 다시 投여함. 11월 21일 來院 : 손가락과 발가락의 關節痛症이 없어지고 무릎이 부어있던 것도 많이 好轉되었는데 요 근래에 頭痛이 있고 전에도 머리가 자주 아팠다 하고 口渴은 없는 상태임. 陽明形의 頭風證으로 判斷하여 養血祛風湯⁵⁶⁾을 投여함.

머리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頭風이라고 하는데, 陽明形이 頭風證이 많은 이유는 음식을 잘 먹고, 몸이 덥기 때문에 찬 곳에 눕기를 좋아하니 頭風이 생긴다. 12월 5일 來院 : 두통은 好轉되었으며 전에 좋아졌던 무릎관절이 요즘 다시 붓고 아프다고 來院 하여 大黃左經湯⁵⁷⁾을 投여함. 陽 陽明形은 熱이 津液을 말려버리니 膝關節, 발목관절, 엄지뼈 등이 빨리 닳는다. 이런 形은 下法을 쓰면 補陰이 되는 것이다. 下라는 것은 본래 陰을 돕는 것이니⁵⁸⁾ 關節을 再生시킨다.

· 문 ○○, 여자 54세

[來院日] : 2001년 5월 24일

[形色] : 膀胱體, 面黑, 靨骨赤

[脈] 76 脾 - 小腸 心

> 膀胱 <

74 胞 - 胃 腎

[症狀]

① 양 손이 저리다.

② 上熱感이 자주 있고 허리가 아프다.

③ 작년 가을부터 감기끼가 계속있다.

[處方] : 人蔘養榮湯

[考察] : 나이가 50대이니 虛勞로 봐야 하고 감기끼는 虛勞의 常症이다⁵⁹⁾. 靨骨은 骨의 근본이며⁶⁰⁾ 靨骨이 붉으니 潮熱로 인하

여 뼈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 환자는 老化로 榮衛의 運行이 되지 않아 麻木이 온 것으로 본다.

[經過] : 6월 20일 來院 하여 손 저리는 것이 없어지고 上熱感이 없어졌으며 허리의 痛症도 훨씬 덜 하다고 하나 靨骨의 紅潮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上記 處方을 投여함.

· 이 ○○, 여자 76세

[來院日] : 2000년 3월 11일

[形色] : 膀胱體, 精科

[脈] 66 肝 - 大腸 心

> 膀胱 <

66 心 - 膽 腎

[症狀]

① 허리와 다리가 아픈데 특히, 兩 하지의 감각이 별로 없고 右側이 심하며 다리에 힘이 없다.

② 口渴이 있고 추우면 몸이 떨린다.

③ 小便을 자주 보고 시원찮은데 小便에 찌꺼기가 있고 힘을 쥐야 조금 본다. 밤에 小便을 5-6번 정도 한다.

④ 消化도 잘 안 되는 편이다.

⑤ 小便이 붉게 나오는데 병원에서 피가 나온다고 진단 받음.

[處方] : 增損白朮散⁶¹⁾ 合 却病延壽湯⁶²⁾

[考察] : 老人은 비록 外感이 있더라도 苦寒한 藥과 크게 汗, 土, 下 하는 것을 쓰지 말고 마땅히 隱和한 藥으로 治療한다. 老人은 小便의 量이 적고 짧으니 이것이 病이 일어나는 長本이다.⁶³⁾ 이것은 氣가 부족해서 氣의 運行이 안되어 오는 것이다. 즉, 陽氣가 虧損해서 온 것이다. 小便短少가 있으면서 下體에 힘이 없으니 上記 處方을 쓰면 下肢의 麻木도 좋아질 것이다.

[經過] : 4월 27일 來院 : 서울의 종합병원에 가서 治療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다리가 조금 힘이 돌아온다고 하며 小便보는 것이 시원해지고 小便이 붉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上記 處方을 1제 處方함. 5월 20일 來院 : 口渴은 없어지고 허리다리의 통증도 많이 없어졌으며 兩 下肢의 감각이 많이 돌아오고 다리에 힘이 생긴다. 上記 處方을 投여함. 8월 11일 來院 : 小便보는 것이 많이 좋아지고 小便色은 괜찮음. 요즘 여름이라서 땀이 많고 몸이 덥다고 하여 上記 處方에 黃芩, 麥門冬 各 1錢을 加하여 處方함. 10월 30일 來院 : 요즈음 무리를 했더니 다시 小便이 시원찮고 다리의 감각이 조금 없어졌다고 하여 增損白朮散 合 却病延壽湯을 1제 投여함. 以後로 小便이 시원찮으면 來院하여 上記 處方으로 治療를 받음.

· 허 ○○, 여자 66세

[來院日] : 2001년 5월 20일

[形色] : 膀胱體, 氣科, 눈밑에 痰飲기

[脈] 70 脾 - 小腸 肝

> 膽 <

72 胞 - 胃 肺

[症狀]

① 手足이 저리고 쥐가 난다.

53) 國譯增補東醫寶鑑, p. 671

54) 國譯增補東醫寶鑑, p. 2 氣가 盛衰하는 경우

55) 國譯增補東醫寶鑑, p. 627 陽虛, 陰虛 二證을 分別하는 경우

56) 國譯增補東醫寶鑑, p. 226

57) 國譯增補東醫寶鑑, p. 407 脚氣의 治療法의 경우

58) 國譯增補東醫寶鑑, p. 506 下가 많아서 陰이 亡하는 경우

59) 國譯增補東醫寶鑑, p. 664 虛勞證의 경우: 대개 飲食이 減少하고 精神이 昏迷하고 遺精하고 夢泄하고 腰, 背, 胸, 脇, 筋, 骨이 당기며 아프고 潮熱하며 自汗하고 痰이 盛하고 咳嗽하는 證은 다 虛勞의 常症이다.

60) 國譯增補東醫寶鑑, p. 397 靨骨이 骨의 根本인 경우

61) 國譯增補東醫寶鑑, p. 17 老人을 保養하는 法

62) 國譯增補東醫寶鑑, p. 17

63) 國譯增補東醫寶鑑, p. 17

②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다.

③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자주 있다.

[處方] : 十全大補湯⁶⁴⁾ 加 半夏, 陳皮 各 1 錢.

[考察] : 老人은 形氣가 무너져서 病이 온다. 十全大補湯은 形氣를 바르게 해주는 藥이다. 陰陽 氣血을 조절해주니까 形氣가 바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十全大補湯은 榮衛를 조절해 주는 藥이다. 이 환자는 老化로 因하여 榮衛가 運行되지 않아 麻木이 온 것이다. 老人이 머리가 아픈 것도 運行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니 運行시키는 藥인 十全大補湯에 痰飲의 形象과 症狀이 있으니 半夏, 陳皮를 加하여 處方함.

[經過] : 6월 19일 來院 : 脈이 64 - 62로 나오고 머리 아픈 것이 덜해지고 팔다리가 쥐가 나지 않음. 上記 處方을 투여함.

7월 10일 來院 : 手足이 저린 것은 거의 없어졌으나 머리가 조금 아프다하여 다시 上記 處方을 투여함.

· 최 ○○, 여자 74세

[來院日] : 2000년 7월 20일

[形色] : 臍體, 얼굴이 上下로 생겼으며 주름이 많다, 鼻爲主

[脈] 75 脾 - 小腸 心

> 膀胱 <

73 胞 - 胃 腎

[症狀] : 얼마 전부터 右側 팔이 힘이 없고 저리고 뻣뻣하고 감각이 둔하며 右側 얼굴도 그렇고 右 半身이 모두 그렇다고 하며 中風이 아닌가 하고 來院하였다.

[處方] : 補中益氣湯 加 黃栢 3分 · 紅花 2分⁶⁵⁾

[考察] : 老人病은 溫補를 爲主로 하되 養性하고 延年하는 藥을 長期間 먹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우유라도 常服하는 것이 좋다. 이 환자는 老人으로 虛勞로 봐야한다. 五臟機能이 虛弱해서 주름이 생긴다. 즉, 먹는 것에 비해 일을 많이 해서 주름살이 생긴 것이다. 老化로 오는 麻木 증세로 보고 계절이 여름이니 夏暑에는 補氣를 해야하므로⁶⁶⁾ 上記 處方을 2제 연속 투여하여 麻木 증세가 好轉되었다.

· 박 ○○, 남자 72세

[來院日] : 2000년 7월 27일

[形色] : 臍體, 天垂, 下關이 빠져있다. 鼻爲主

[脈] 62 腎 - 三焦 心

> 膀胱 <

61 肺 - 膀胱 腎

[症狀]

① 右側 手足이 無力하고 兩 手足이 저리다.

② 兩 膝 以下가 묵직하다.

③ 전립선 수술 받은 병력이 있고 小便을 자주 보고 시원치 않다.

④ 大便도 시원치 않고 어지럽다.

[處方] : 腎氣湯⁶⁷⁾ 去 澤瀉 加 白茯苓 · 益智仁 各 1錢⁶⁸⁾

[考察] : 나이가 많은 老人은 基本을 튼튼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老人은 高목과 같으므로 보양하는 處方을 쓰면 된다. 또한 天垂는 動하기를 좋아한다. 老人이 小便이 좋지 않아서 오는 麻木로 보고 處方함.

[經過] : 上記의 處方 3제를 먹고 小便이 시원해졌으며 右手의 無力感과 兩 手足의 麻木感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돌아왔다. 이 환자는 처음 來院시에 本人이 中風이 아닌가 하고 來院하였으나 老人病으로 보고 治療하여 好轉되었다.

(4) 五臟六腑로 오는 麻木疾患

· 정 ○○, 남자 39세

[來院日] : 2001년 10월 9일

[形色] : 面黑, 口爲主, 엉덩이가 크며 머리가 벗겨져 있다. 안경(근시)

[脈] 64 腎 - 三焦 心

> 膀胱 <

64 肺 - 膀胱 腎

[症狀]

① 어렸을 때부터 鼻炎이 있다.

② 감기가 자주 오고 냄새를 잘 못 맡는다.

③ 兩손마디가 빠근하고 아프다.

④ 허리가 좋지 않다.

[處方] : 加減八味湯⁶⁹⁾

[考察] : 四肢는 諸陽의 根本이 되며 陽이 盛하면 四肢가 實하다⁷⁰⁾. 陽氣가 제대로 運行하지 못하면 九竅가 안으로 閉塞하고 肌肉이 밖으로 壅塞하여 知覺, 運動, 視聽, 言笑가 다 機能을 잃는 법이다⁷¹⁾. 근시가 있고 面黑, 口大하며 엉덩이가 크니 腎臟을 爲主로 생겼다. 그 중에서 陽이 不足하여 麻木이 온 것으로 보고 處方함.

[經過] : 10월 23일 來院하여 兩손마디가 아프고 뻣뻣한 것은 좋아졌으나 鼻炎은 여전히함. 加減八味湯을 處方함.

· 송 ○○, 남자 67세

[來院日] : 2000년 9월 10일

[形色] : 膀胱體, 살이 찐 편으로 배가 나와 있다. 얼굴이 붉다.

[脈] 57 胞 - 胃 心

> 膀胱 <

55 腎 - 三焦 腎

[症狀]

① 왼쪽 手足이 저리다.

② 밤에 小便을 자주보고 右側 무릎이 좋지 않다.

[處方] : 八味地黃湯⁷²⁾

[考察] : 五臟은 色과 耳目口鼻의 大小, 高底, 剛柔, 正偏으로 나타난다. 얼굴이 붉고 배가 나왔으니 命門火衰로 手足에 麻木이 온 것이다. 또한, 脈이 낮은 것은 陽氣가 不足한 것이다. 腎虛하면 虛火가 뜨고 특히 남자의 경우 배가 나오면 命門火衰에 의한 것이다.

[經過] : 八味地黃湯 2제를 服用하고 左側 手足의 저린 것이 없어졌다.

64) 國譯增補東醫寶鑑, p. 670

65) 國譯增補東醫寶鑑, p. 646

66) 國譯增補東醫寶鑑, p. 602 夏暑에는 補氣를 해야 하는 경우

67) 國譯增補東醫寶鑑, p. 675 腎氣丸을 湯劑로 한 것.

68) 國譯增補東醫寶鑑, p. 17 老人病을 다스리는 法

69) 國譯增補東醫寶鑑, p. 131

70) 國譯增補東醫寶鑑, p. 399 四肢가 諸陽의 根本이 되는 경우

71) 國譯增補東醫寶鑑, p. 26 氣가 衛로 變하여 밖을 護衛하는 경우

72) 國譯增補東醫寶鑑, p. 131

·송 ○○, 여자 60세

[來院日] : 2000년 5월 26일

[形色] : 膽體로 많이 마른 편이다.

[脈] 90 心 - 膽 肝

> 膽 <

90 肝 - 大腸 肺

[症狀]

- ① 팔다리가 저리다.
- ② 당뇨가 있어 당뇨 약을 服用한지가 10년이 되었다.
- ③ 消化가 안되고 泄瀉를 자주 한다.

[處方] : 參苓白朮散⁷³⁾을 湯劑로 處方함.

[考察] : 內經에 “四肢가 다 胃에서 氣를 稟受하되 經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반드시 脾로 인하여 稟受를 얻는 것인데 이제 脾가 病들어 胃를 爲하여 津液을 運行하지 못하면 四肢가 水穀의 氣를 받지 못하니 氣가 날로 衰하고 脈道가 不利하며 筋骨과 肌肉이 모두 無氣하여지므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⁷⁴⁾ 라고 하였다. 虛勞證에 肌肉이 여위어지고 음식을 잘먹지 못하는 症은 脾가 虛한 때문이다.⁷⁵⁾

[經過] : 연속하여 2제를 투여하여 泄瀉를 하지 않고 消化도 조금 낮고 팔다리 저린 것이 조금 好轉되었으나 虛勞證에 肉脫이 甚하면 難治에 屬하니⁷⁶⁾ 장기적인 治療가 필요하다.

·차 ○○, 여자 73세

[來院日] : 2001년 8월 31일

[形色] : 膀胱體로 배가 나왔고, 精科, 面黑, 주름이 많다.

[脈] 70 脾 - 小腸 心

> 膀胱 <

68 胞 - 胃 腎

[症狀]

- ① 兩팔이 無力하여 힘이 없다.
- ② 消化가 안된지가 오래되고 泄瀉를 자주 한다.
- ③ 허리가 좋지 않고 걸음을 걸으면 숨이 차다.
- ④ 입맛이 없고 입이 말라서 늘 껌을 씹는다.
- ⑤ 잠이 잘 오지 않고 어지럽다.
- ⑥ 煩熱이 있고 땀이 나며 가끔 寒氣도 든다.

[處方] : 十全大補湯

[考察] : 脾가 虛하고 四肢를 들지 못하는 證은 대개 脾가 病들면 胃와 더불어 그 津液을 運行하지 못하니 治法은 補해야 한다. 十全大補湯으로써 邪를 제거하고 正을 머무르게 해야 한다. 十全大補湯은 虛勞에 사용하고 또한, 脾臟약이니 面黃한 사람에게 사용하고 주로 精科藥으로 上下左右를 조절한다. 十全이란 天地의 成數로 十全大補湯은 上下左右 陰陽氣血을 調和 있게 해주는 약이므로 上下左右의 비율이 안 맞을 때 이것을 조화 있게 해주면 五臟의 기능이 균형을 찾게 된다. 이 患者는 脾가 虛하고 또한 老化로 인하여 麻木이 온 것이다.

[經過] : 9월 15일 來院 하여 藥 服用 중에 계속 泄瀉가 난다고 하여 十全大補湯에 砂仁, 陳皮 各 1錢 하여 處方함. 9월 30일 來院 하여 밥맛이 있고 설사가 나지 않으며 팔이 이제는 빨래할 정도가 되었다고 함. 十全大補湯 加 砂仁·陳皮를 투여함. 10월 15일 에 來院 하여 氣運이 전보다 낮고 팔에 힘이 예전처럼 돌아왔다.

(5) 六經形에 따른 麻木疾患

·김 ○○, 남자 50세

[來院日] : 2000년 6월 13일

[形色] : 膀胱體, 陽明, 太陰, 鼻爲主

[脈] 77 肝 - 大腸 心

> 膀胱 <

78 心 - 膽 腎

[症狀]

- ① 兩손이 저린지 2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治療를 많이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 ② 더위를 많이 타고 大便이 묽다.

[處方] : 藿香正氣散⁷⁸⁾

[考察] : 太陰形은 濕土가 中心이므로 濕의 성질은 不收不舒하여 上腹의 太陰부위가 멎쳐서 胸痞, 胸脇苦滿이 多發하고 手足痺證이 자주 나타난다. 藿香正氣散은 피부호흡을 시키며 또한, 太陰形의 感冒에도 사용한다.

[經過] : 연속하여 2제 사용 후에 몸이 많이 가벼워졌으며 2년 동안 고생했던 손 저림이 사라졌다.

·윤 ○○, 여자 54세

[來院日] : 2001년 6월 11일

[形色] : 厥陰, 氣科

[脈] 78 胞 - 胃 心

> 膀胱 <

78 脾 - 小腸 腎

[症狀]

- ① 全身이 저리고 발바닥이 우리하다.
- ② 97년에 右側 귀 옆으로 뇌수술을 받고 나서 그 후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하다.
- ③ 축농증이 오래되었다.
- ④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고 어깨가 아프다.
- ⑤ 추위를 많이 타고 온몸이 차며 특히 다리가 시리다.

[處方] : 五積散⁷⁹⁾

[考察] : 이 환자는 厥陰으로 배가 차다. 여자는 下가 天이다. 五積散은 天이 寒할 때 쓴다. 배는 太陽叢으로 배가 차면 코가 좋지 않다. 이때 五積散이 女子의 基本方으로 寒濕을 없애주고 코를 뚫어준다. 五積散은 子宮內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데, 찬 것을 없앤다기보다는 律動 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이 患者는 天이 寒하여 腹部律動이 안되어 麻木이 온 것으로 이 患者가 腦를 수술한 것은 陽頭와 陰頭의 관계로 봐야한다.

[經過] : 7월 12일 來院 : 온몸이 저리는 것이 없어지고 코도 조금 편해짐. 五積散을 處方함. 8월 10일 來院 : 모든 증세가 好

73) 國譯增補東醫寶鑑, p. 657 內傷에 調補하는 藥
 74) 國譯增補東醫寶鑑, p. 399 四肢를 쓰지 못하는 경우
 75) 國譯增補東醫寶鑑, p. 673 脾虛藥
 76) 國譯增補東醫寶鑑, p. 385 肉脫의 難治證의 경우
 77) 國譯增補東醫寶鑑, p. 400 四肢를 쓰지 못하는 경우

78) 國譯增補東醫寶鑑, p. 559
 79) 國譯增補東醫寶鑑, p. 559

轉된. 五積散을 處方함. 11월 7일 來院 : 그동안 好轉된 증세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 나타나고 코가 다시 막힌다고 함. 전보다는 추위를 훨씬 덜 탄다고 하여 다시 五積散을 處方함.

· 이 ○○, 여자 59세

[來院日] : 2000년 5월 26일

[形色] : 膀胱體, 面白, 키가 크다. 氣 斜, 眼↓鼻↓(太陽).

[脈] 78 胞 - 胃 心

> 膀胱 <

78 脾 - 小腸 腎

[症狀]

- ① 양손가락이 아리고 저리고 붓는다. 온몸이 저리다.
- ② 땀이 많으며 가끔 寒氣가 든다.
- ③ 허리가 좋지 않고 겨울에 감기가 자주 든다.
- ④ 기운이 없고 잠이 온다.

[處方] : 補中益氣湯 加 木香·烏藥·香附子·青皮·防風·川芎 各1錢, 桂枝 5分

[考察] : 여자 太陰은 太陽과 같이 본다. 太陽은 少氣多血하므로 少氣하여 病이 온다. 이 환자는 衛氣가 허해서 榮衛가 運行되지 못하기 때문에 全身麻木이 온 것이다. 補中益氣湯은 女子藥이다. 여자들은 暈에 傷하기 쉽고 寒에 強하므로 女子들의 基本方이다. 여자들은 動하기를 잘하고 神經을 써서 氣를 손상시킨다. 補中益氣湯은 老人藥이다. 평상시에 虛弱한 老人은 溫補를 주로 하고, 髓粥로 調養하여 修養할 것이니 補中益氣湯을 사용한다. 특히, 膀胱體로 뚱뚱한 사람은 氣虛濕痰하므로 쓴다.

[經過] : 6월 24일 來院하여 全身麻木감이 많이 덜해지고 양손가락도 통증이 덜해짐. 上記 處方을 1제 투여함. 2001년 6월 11일 來院 : 요즘 피곤해서 자꾸 눕고 싶고 기운없고 졸리고 속이 미식 거릴 때가 있고 全身麻木감은 없는데 양손이 또 조금 붓는다고 來院 하였다. 注夏病으로 보고 補中益氣湯 去 升麻, 柴胡 加 黃栢, 白芍藥, 麥門冬, 五味子 各 1錢 하고 痰이 있으니 加 半夏, 南星 各 1錢⁸⁰⁾ 하여 處方함.

· 이 ○○, 여자 32세⁸¹⁾

[形色] : 膀胱體의 氣斜로 陽明形이며 鶴骨이 크고 얼굴색이 노랗다. 박세리와 비슷하게 생김.

[脈] 80 胞 - 胃 心

> 膀胱 <

78 脾 - 小腸 腎

[既往歷]

① 첫애 때 妊娠中毒證으로 고생하면서 體重이 20kg 增加하고 減少되지 않았는데 첫애를 낳고 下記證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2년 전 둘째 아이를 出產 후 症狀이 더욱 심해짐.

② 帝王切開 수술을 두 번함.

[現在歷]

- ① 양팔이 팔에서 손까지 저린다.
- ② 새벽에 더욱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남의 손과 같다.
- ③ 어깨에서 손까지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 ④ 걸레를 짜는 것도 힘이 들고 마늘도 까기 힘들다.
- ⑤ 生理는 25일형이고 별다른 불편이 없고 食慾, 消化, 大便, 小便, 睡眠등은 정상임.

[治療 및 經過]

① 雙合湯 加 竹瀝·薑汁⁸²⁾

② 1劑를 服用 후에 脈이 76/74로 나오고 主訴症이 40%정도 好轉되고 얼굴색이 밝아짐.

③ 2劑를 服用 후에 主訴症의 90% 정도가 好轉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거의 없어짐.

④ 3劑를 服用함.

[考察] : 이 婦人은 陽明形으로 제왕절개를 한 적이 있고 產後 風이 생김 후 本 症狀이 發生하였으므로 濕痰 및 死血로 인한 上肢部의 皮膚麻木으로 보고 上記의 處方을 투여함.

(6) 外形에 따른 麻木疾患

· 정 ○○, 여자 53세

[來院日] : 2000년 7월 18일

[形色] : 膀胱體, 肥白, 머리가 크다.

[脈] 73 脾 - 小腸 心

> 膀胱 <

72 胞 - 胃 腎

[症狀]

① 왼쪽 얼굴이 감각이 이상하고 뻣뻣하며 입가와 눈이 실룩거리며 왼쪽 눈꺼풀이 감겨진다.

② 헛배가 자주 부르고 숨이 차는 듯하다.

③ 자고 나면 잘 붓고 痰咳증상이 있다.

④ 피로하고 小便, 大便이 좋지 않는데 식사 후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處方] : 六君子湯⁸³⁾

[考察] : 面病은 胃에 屬한다⁸⁴⁾. 이 환자는 肥白하여 氣虛濕痰이다.⁸⁵⁾ 뚱뚱하면 胃氣가 나쁘다. 六君子湯은 胃氣를 돌구는 약이며 奇經八脈의 약이고 또한, 老人의 痰病에도 사용한다.

[經過] : 8월 23일 來院하여 藥 服用 중에는 얼굴의 감각도 괜찮고 실룩거리는 것도 거의 없었다고 함.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여 六君子湯 加 黃芪 1錢半, 酸棗仁炒 3錢⁸⁶⁾을 處方함.

9월 15일 來院 하여 上記 증세가 많이 好轉되었는데 몇 일 전에 집안에 일이 있어 神經을 썼더니 消化가 안되고 헛배가 부르며 앞의 증세가 다시 심해졌다고 하여 六君子湯 加 砂仁·神麴·枳實 各 1錢을 處方함. 12월 18일 來院하여 얼굴의 증세가 많이 好轉되어 피로하거나 神經 쓰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六君子湯을 處方함.

80) 國譯增補東醫寶鑑, p. 605

注夏病의 경우: 흔히 春末과 夏初에 頭痛하며 다리에 힘이 없고 밥맛이 없고 體가 熱한 증을 속에 注夏病이라고 하는데, 陰이 虛하고 元氣가 부족한데 屬하는 증이니 補中益氣湯을 가감하여 응용한다.

81) 形象學會報 第1號, 產後風과 關聯된 皮膚麻木 患者의 雙合湯 治療例(구 교성).

82) 國譯增補東醫寶鑑, p. 381

83) 國譯增補東醫寶鑑, p. 109

84) 國譯增補東醫寶鑑, p. 240 面病이 胃에 屬하 경우

85) 國譯增補東醫寶鑑, p. 477 肥瘦로써 病勢를 分別하는 경우

86) 國譯增補東醫寶鑑, p. 77

· 하 ○○, 여자 47세

[來院日] : 2001년 8월 26일

[形色] : 膀胱體, 氣科, 鼻爲主, 印堂에 사마귀가 나왔다, 面赤

[脈] 60 肝 - 大腸 肝

> 臍 <

58 心 - 膽 肺

[症狀]

① 兩손이 저리는데 右側 손의 內側이 더 저리고 특히 새끼손가락 쪽으로 심하다.

② 불안하고 초조하며 이럴 때는 뭐든지 먹어야 증세가 덜해진다.

③ 목에 가래가 있고 便秘가 있다.

④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泄瀉를 한다.

[處方] : 加味四七湯⁸⁷⁾ (神門)

[考察] : 여자가 코 爲主로 남자같이 생겼으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얼굴이 붉고 印堂에 사마귀가 있으니 心氣가鬱滯된 것이다. 팔이 內側으로 異常이 있는 것도 心이 實한 것이다.⁸⁸⁾ 《洪家秘傳》에서 右手 제 5指에 異常은 加味清心蓮子湯⁸⁹⁾을 응용하지만 이 환자는 氣科로 心氣가鬱滯되어 運行이 안돼서 오는 병이다. 또한, 心은 汗과 便을 主管한다.⁹⁰⁾ 梅核氣가 있다는 것은 天地가 交泰가 안 되는 것으로 가장 急한 것이다.⁹¹⁾ 왜냐하면 肺는 氣를 흡해서 맺힌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鬱滯가 된다.

[經過] : 9월 20일 來院 하여 藥을 服用하는 동안에는 팔이 저리지 않았다고 함. 加味四七湯을 處方함. 11월 4일 來院 하여 손이 저린 것이 90% 이상 好轉되었고 불안 초조한 것이 많이 좋아짐. 加味四七湯을 處方함.

· 정 ○○, 여자 76세

[來院日] : 2000년 7월 10일

[形色] : 肥白, 배가 많이 나오고 등이 구부정하다.

[脈] 96 心 - 膽 心

> 膀胱 <

96 肝 - 大腸 腎

[症狀]

① 손이 저리는데 특히 손바닥이 심하여 계속 박수를 치고 있다.

② 숨이 차고 어지럽다.

③ 뒷목이 아픈데 洋方에서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음.

④ 입이 마르고 消化가 안된지가 오래 되었다.

⑤ 무릎이 많이 좋지 않고 乳房이 아프다.

[處方] : 六君子湯 加 砂仁·神麩·枳實 各 1錢

[考察] : 여자는 뚱뚱한 것이 흠이고 또한, 배가 나온 것도 흠이다. 여자는 12經絡을 爲主로 되어있는데 배가 나오면 腹部律動이 되지 않아 經絡의 運行에 문제가 되어 麻木이 發生한다. 손바닥은 內傷에 屬하고⁹²⁾ 乳房은 胃에 屬하며⁹³⁾ 뒷목이 아픈 것도

이에 의한 것이다. 이 환자는 숨이 차니 《古今實驗方》의 六君子湯加味方⁹⁴⁾을 생각 할 수 있으나 老人病은 胃氣를 損傷시키면 안되므로 上記 處方을 투여함.

[經過] : 1제 투여 시부터 손바닥 저린 것과 뒷목 아픈 것이 덜해지기 시작하여 2001년 1월 10일 來院까지 7제를 투여함. 손바닥저린 것은 없어지고 뒷목도 많이 편해졌음. 1월 10일 來院하여 脈이 80-80 나오고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어지럽다고 하여 眩暈은 中風의 始初이니 四君子湯 加 黃芪蜜灸 2錢, 半夏, 陳皮 各 1錢, 川芎·荊芥 各 5分⁹⁵⁾을 處方함. 2월 13일 來院하여 어지러운 것은 많이 좋아졌으나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여 濕痰을 없애기 위해 六君子湯을 處方함. 이후로 현재까지 六君子湯으로 治療중이며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2) 病因에 따른 麻木疾患

(1) 內因으로 因한 麻木疾患

· 이 ○○, 여자 37세

[來院日] : 2000년 5월 30일

[形色] : 臍體, 氣科, 鼻爲主, 눈 밑이 검다.

[脈] 70 脾 - 小腸 肝

> 臍 <

70 胞 - 胃 肺

[症狀]

① 양팔이 저리고 손끝이 아프다.

② 消化가 안되고 가끔 胃痙攣이 있으며 배가 자주 아프고 머할때가 있다.

③ 梅核氣가 있고 감기가 자주 든다.

④ 頭痛과 生理痛이 있다.

⑤ 痰飲증상이 있다.

[處方] : 開結舒經湯, 二陳湯 加 蒼朮·白朮·川芎·山楂 各 1錢⁹⁶⁾.

[考察] : 이 환자는 氣科로 봐서 七情六鬱로 인하여 氣가鬱滯하여 나타나는 麻木으로 보고 開結舒經湯을 處方함.

[經過] : 6월 19일 來院 : 증상이 好轉되지 않고 消化가 안되고 가슴이 답답하며 몸에 여드름처럼 뭐가 나고 가렵다고 하여 內傷發斑⁹⁷⁾으로 보고 二陳湯 加 蒼朮·白朮·川芎·山楂 各 1錢을 處方함. 이 후로 연속하여 二陳湯 加 蒼朮·白朮·川芎·山楂를 4제 服用하고 麻木과 上記의 증세가 모두 好轉되었다. 四肢는 陽氣가 오르는 곳이므로 胃에 屬한다. 그러므로 內傷으로 봐야 한다. 이 환자는 痰飲의 形狀과 症狀이 나타나니 痰熱로 인한 內傷發斑이다. 여자는 氣盛하고 形衰하다. 그래서 氣實한 여자는 生理痛이 많다. 이 환자는 눈 밑이 검기 때문에⁹⁸⁾ 痰으로 生理痛이 온다고 본다. 여자가 코가 크면 남자 같으므로 항상 마음이

87) 國譯增補東醫寶鑑, p. 45

88) 國譯增補東醫寶鑑, p. 120 心臟病的 虛實의 경우

89) 洪家定診秘傳, p. 35

90) 國譯增補東醫寶鑑, p. 778

91) 國譯增補東醫寶鑑, p. 322 咽喉痛; ... 喉痺咽喉痛이라고 하는 것은 咽喉가 함께 病들어서 天地의 氣가 아울러 閉塞함을 이르니 ...

92) 國譯增補東醫寶鑑, p. 645 內傷과 外感을 分別하는 경우

93) 國譯增補東醫寶鑑, p. 356 男女의 乳疾이 서로 다른 경우 : 男子의 乳疾이 婦人의 乳疾과 같지 않는 것은 女는 肝胃를 損하고 男은 肝腎을 損하기 때문이다.

94) 古今實驗方, p. 51 六君子湯 治氣虛弱喘嗽氣急痰盛 本方 加 五味子, 麥門冬, 黃芩, 黃柏, 枳殼, 貝母, 前胡, 蘇葉, 香附子, 桑栝皮

95) 國譯增補東醫寶鑑, p. 227 眩暈

96) 國譯增補東醫寶鑑, p. 636

97) 國譯增補東醫寶鑑, p. 377

98) 國譯增補東醫寶鑑, p. 104

편안하지 않다. 이 환자는 氣實한 여자다. 氣實한 生理痛은 二陳湯을 써야 한다.

· 최 ○○, 여자 39세

[來院日] : 2001년 7월 30일

[形色] : 膀胱體, 陽明形, 甲類, 頭大

[脈] 68 脾 - 小腸 肝

> 膽 <

70 胞 - 胃 肺

[症狀]

① 손등 발등이 붓고 가렵고 살갓이 아프다. 가려워서 긁고 나면 열이 난다.

② 식사는 잘하는데 속이 비면 쓰리고 속이 미식거린다.

③ 머리가 자주 아프고 몸이 잘 붓는다.

④ 땀이 많으며 열이 잘 오르고 便秘가 있다.

[處方] : 化痰清火湯⁹⁹⁾

[考察] : 《內經》에 “足太陰이 脾가 되는데 三陰에 氣를 運行하고 陽明이 胃가 되는데 三陽에 氣를 運行하니 臟腑가 각각 그 經을 因해서 陽明에 氣를 받는 고로 胃를 爲해서 津液을 運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四肢가 다 胃에서 氣를 稟受하되 經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반드시 脾로 因하여 稟受를 얻는 것인데...”¹⁰⁰⁾ 라고 하였다. 이 환자는 陽明으로 過食으로 인한 內傷이 올 수 있으며, 脈이 膽에 떨어졌으므로 七情이 鬱해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陽明은 목심이 많다.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 痰火가 생겨 嘈雜증이 온 것이다. 여자가 남자같이 생각하고 남자가 여자같이 생기면 嘈雜증이 많이 온다.

[經過] : 8월 24일 來院하여 손등 발등이 붓고 가렵고 아픈 증세가 없어지고 속이 쓰린 것이 많이 好轉됨. 이 후로 上記 處方을 2제 투여하여 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음.

· 김 ○○, 여자 62세

[來院日] : 2001년 7월 13일

[形色] : 膀胱體, 얼굴에 잔주름이 많다. 눈 밑에 痰飲기가 있다.

[脈] 72 脾 - 小腸 心

> 膀胱 <

70 胞 - 胃 腎

[症狀]

① 손발이 저리고 온 몸이 다 저리는데 특히 배꼽부근을 누르면 몸 전체가 팽기듯이 아프다.

②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

③ 속이 미식거리고 목이 답답하다.

④ 입이 마르고 입술이 부르트다.

[處方] : 十全大補湯 加 半夏·陳皮,

六君子湯 加 黃芪·酸棗仁炒, 補中益氣湯 加 三稜·蓬朮·靑皮·香附子·桔梗·藿香·益智仁·肉桂 各 1錢

[考察] : 虛勞에 痰飲의 形狀과 症狀이 있으니 十全大補湯에 半夏, 陳皮 各 1錢을 加하여 處方함. 연속하여 2제를 服用함.

[經過] : 9월 3일 來院 : 어지러운 증상은 많이 好轉되었으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하여 六君子湯 加 黃芪 1錢5分, 酸棗仁炒 3錢을 투여함. 10월 11일 來院하여 不眠은 好轉되고 저린것도 조금 好轉됨. 현재는 감기끼가 조금 있고 입맛이 없으며 消化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며 腹診時에 腹部에 積聚가 만져짐. 補中益氣湯 加 三稜·蓬朮·靑皮·香附子·桔梗·藿香·益智仁·肉桂 各 1錢을 處方함. 10월 30일 來院 : 腹部의 積聚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全身이 저린 것도 많이 好轉되고 消化가 잘되며 입맛이 나아짐. 上記의 補中益氣湯 加味方을 處方함. 腹部에 積聚가 있으면 腹部의 運動이 잘 되지 않는다. 腹部의 運動은 津液을 全身에 흠어뜨리고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할 때 全身麻木이 오는데 이때 쓰는 處方이 補中益氣湯이다. 다시 말하면, 배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處方이다. 五積과 六聚와 癥瘕와 積塊에 元氣가 虛弱하고 飲食을 增進하지 못하고 四肢가 沈困하면 補中益氣湯 加 三稜·蓬朮·靑皮·香附子·桔梗·藿香·益智仁·肉桂를 쓴다¹⁰¹⁾.

(2) 外因으로 因한 麻木疾患

· 진 ○○, 여자 45세

[來院日] : 2001년 6월 13일

[形色] : 腦體, 面黃, 鼻爲主, 手掌黃

[脈] 66 肝 - 大腸 心

> 膀胱 <

66 心 - 膽 腎

[症狀]

① 2001년 2월 27일에 胸痞證으로 來院하여 香砂養胃湯(胸門)¹⁰²⁾으로 治療되었던 환자이다.

②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팔이 저리고 밥맛이 없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處方] : 人蔘益氣湯¹⁰³⁾

[考察] : 夏暑에는 補氣를 해야한다. 이 환자는 여름에 來院하였는데 正氣가 不足하여 夏月의 濕熱로 兩手에 麻木이 온 것으로 보고 上記 處方을 투여함.

[經過] : 1제 服用후에 팔 저리는 것이 좋아지고 밥맛과 피곤한 것이 많이 덜해졌다고 하며 藥을 1제 더 주문하였다.

· 임 ○○, 여자 41세

[來院日] : 2001년 9월 13일

[形色] : 氣弱, 얼굴이 추물고 때가 겹다.

[脈] 59 肝 - 大腸 心

> 膀胱 <

63 心 - 膽 腎

[症狀]

① 왼손이 저리고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② 허리가 좋지 않고 오래 서있으면 종아리가 뻠긴다.

③ 추위를 많이 타고 消化가 잘 되지 않는다.

④ 머리도 자주 아프고 生理痛이 있다.

⑤ 몸살끼 비슷하게 몸이 아프다.

[處方] : 五積散

99) 國譯增補東醫寶鑑, p. 653

100) 國譯增補東醫寶鑑, p. 399

101) 國譯增補東醫寶鑑, p. 750

102) 國譯增補東醫寶鑑, p. 345

103) 國譯增補東醫寶鑑, p. 380

[考察] : 얼굴에 때가 낀 것은 風寒濕에 傷한 것이며 얼굴이 추운 것은 寒에 傷한 것이다. 手足은 成體의 根本이며 五臟의 씩이며 “諸陽之會”로써 陽氣를 받아야 하며 風寒濕의 邪氣를 배제하여 人體의 形을 維持시키는 것이다. 이 환자는 寒濕에 傷하여 팔에 麻木이 생긴 것으로 보고 五積散을 투여함.

[經過] : 2제를 服用하여 上記의 증세가 많이 好轉되었다.

· 김 ○○, 여자 46세

[來院日] : 2001년 8월 3일

[形色] : 膀胱體, 靨骨이 발달하였고 靨骨에 기미가 있다. 魚際가 푸르다.

[脈] 66 肝 - 大腸 心
> 膀胱 <
66 心 - 膽 腎

[症狀]

- ① 팔다리가 저리다.
- ② 手足이 冷하고 배가 차다.
- ③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잘 붓고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다.
- ④ 미식거리고 熱이 오르고 小便을 자주 본다.
- ⑤ 왼쪽 어깨가 좋지 않고 종아리가 뻥긴다.
- ⑥ 膀胱증상이 있고 가끔 머리가 아프다.

[處方] : 五積散

[考察] : 이 환자는 靨骨이 발달하였다. 靨骨은 精으로 보며 濕으로 보고 水로 보고 寒으로 본다. 魚際가 푸른 것은 차다는 것이다¹⁰⁴⁾. 여자가 손발이 차면 寒證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아랫배가 차가우면 積聚가 생기는데 배를 눌러서 積聚가 만져지면 五積散을 쓴다.

[經過] : 8월 22일 來院. 손발이 저린 것과 붓는 것이 많이 좋아짐. 종아리가 많이 뻥긴다고 하여 五積散 加 羌活·獨活·牛膝 各 1錢 하여 處方함. 9월 7일 來院 :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손발 저린 것이 없어짐. 종아리도 뻥기지 않음.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고 하여 五積散 加 牛膝·杜仲·木瓜 各 1錢 하여 處方함. 9월 24일 來院 : 다리 아픈 것이 좋아짐. 上記의 모든 증세가 好轉됨. 五積散을 處方함. 이후로 五積散을 3제 더 服用하여 上記증상이 모두 好轉됨.

(3) 不內外因으로 因한 麻木疾患

▶ 子宮 切除수술을 받은 경우

· 정 ○○, 여자 60세

[來院日] : 2000년 9월 30일

[形色] : 臍體, 마른형. 手足爲主로 생겼으며 입가에 주름이 많다.

[脈] 58 肝 - 大腸 心
> 膀胱 <
61 心 - 膽 腎

[症狀]

- ① 자궁 절제수술과 비후성 비염수술 병력이 있다.
- ② 팔다리가 저리는데 특히 右側 다리가 심하다.
- ③ 땀심이 없어 허리가 구부정하고 허리가 좋지 않다.
- ④ 입이 마르고 大便이 묽은 편이다.

[處方] : 補中益氣湯 加 知母·黃栢·牛膝·杜沖·白芍藥 各 1錢¹⁰⁵⁾

[考察] : 形象醫學에서는 수술을 큰 흠으로 본다. 특히 腹部의 수술은 腹部律動에 문제를 일으킨다. 子宮수술을 한 경우는 腹部의 律動이 잘 안 되는 것이다. 麻木은 經絡이 나쁜 것이다. 經絡이 나쁘다는 것은 腹部의 律動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자는 經絡을 爲主로 되어있으므로 補中益氣湯을 處方함.

[經過] : 이 환자는 2000년 9월 30일부터 2001년 3월까지 上記 處方 5제를 服用하여 腹部에 힘이 생겨 구부정한 것이 좋아지고 麻木感이 거의 없어져 지금은 가끔 右側다리가 조금 저리다고 함.

· 김 ○○, 여자 63세

[來院日] : 2001년 7월 17일

[形色] : 陽明形, 氣科, 耳目口鼻가 크다.

[脈] 80 胞 - 胃 心
> 膀胱 <
76 脾 - 小腸 腎

[症狀]

- ① 자궁 절제수술 병력이 있다.
- ② 왼쪽 어깨가 아프고 왼팔이 저리고 뻣뻣하다.
- ③ 消化가 잘 되지 않고 痰飲의 증상이 있다.
- ④ 腹診時 中脘에 壓痛이 있다.

[處方] : 正傳加味二陳湯¹⁰⁶⁾

[考察] : 수술 후에는 반드시 그 痕迹(窠囊)을 남기게 된다. 子宮을 제거하고 난 후에 消化가 안 되거나, 얼굴이 누렇거나 한 것은 食積痰이 있는 것인데 여자가 神科나 氣科일 경우에 많이 드러난다. 이때 正傳加味二陳湯으로 食積痰을 다스리고 導痰, 補脾, 消食, 行氣한다.

[經過] : 8월 15일 來院. 消化가 잘되고 痰飲증상이 없어졌으나 왼쪽 어깨와 팔의 麻木이 계속 있어서 上記 處方을 투여함. 9월 2일 來院 : 왼쪽 어깨의 통증과 팔의 麻木感이 현저하게 減少되었다. 上記 處方을 투여함.

▶ 帝王切開 수술을 한 경우

· 이 ○○, 여자 32세

[來院日] : 2000년 3월 24일

[形色] : 膀胱體, 面白, 안경(근시, 난시)

[脈] 53 腎 - 三焦 心
> 膀胱 <
48 肺 - 膀胱 腎
(不整脈이 나타남)

[症狀]

- ① 임신이 잘 안되어 시험관아기로 3년 전에 帝王切開 수술로 쌍둥이를 出產하였음.
- ② 작년 겨울에 左手 5指가 저리고 아프더니 지금은 左半身이 다 저리다.
- ③ 처녀때부터 生理가 不規則하며 生理중에도 生理量이 거의 없고 그나마 없는 달이 더 많다.

105) 古今實驗方, p. 138

106) 國譯增補東醫寶鑑, p. 104

104) 國譯增補東醫寶鑑, p. 399

4. 환절기때 鼻炎이 있으며 消化가 안 되는데 조금 過食하면 등이 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아프다.

⑤ 冷이 조금 있으며 항상 눕고 싶고 疲勞하다.

[處方] : 補中益氣湯 加 木香·烏藥·香附子·青皮·防風·川芎 各 1錢 桂枝 5分.

[考察] : 帝王切開를 했다는 것은 元氣를 損傷한 것으로 배의 律動이 안되므로 榮衛의 運行이 안 되는 要因이 된다. 이 환자는 衛氣가 虛해서 榮衛가 運行되지 못하기 때문에 麻木이 온 것이다. 또한 脈이 臂에 떨어진 것은 臂의 生氣作用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본다.

[經過] 4월 20일 來院. 麻木感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피로도 훨씬 좋아짐. 上記 處方을 투여함. 5월 31일 來院 : 麻木感이 없어졌으나 生理가 기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는다고 來院하였다. 經漏가 그치지 않고 氣가 약하고 困憊한 證은 中氣가 虛弱해서 下陷이 甚한 때문이니 當歸芍藥湯¹⁰⁷⁾을 處方함. 7월 4일 來院 : 上記의 증세는 모두 好轉되었고 요즘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여 補中益氣湯 加 知母·黃柏·牛膝·杜仲·白芍藥 各 1錢을 1제 투여함. 9월 21일 來院 : 腰痛은 좋아졌으며 요즘 환절기라서 鼻炎이 심해졌다고 함. 膀胱體로 面白하여 元氣가 不足해서 春夏秋冬에 適應하지 못해서 온 것으로 보고 補中益氣湯季節方¹⁰⁸⁾(加 羌活·防風·荊芥)을 투여함.

▶ 脊椎수술을 받은 경우

· 이 ○○, 남자 45세

[來院日] : 2001년 10월 6일

[形色] : 陽明形, 骨大, 이마에 주름이 있고 法令이 발달하였다.

[脈] 64 腎 - 三焦 心

> 膀胱 <

62 肺 - 膀胱 腎

[症狀]

① 3개월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로 양발이 갑갑하고 저리하다.

② 식사는 잘하고 大便이 시원치 않다.

[處方] : 六味地黃湯¹⁰⁹⁾ 加 鹿茸·當歸·木瓜·續斷 各 1錢¹¹⁰⁾.

[考察 및 經過] : 靛骨이 발달되면 骨髓가 不足해지기 쉽고 陽明으로 多氣多血하니 더욱 그럴 것이다. 脈이 臂에 떨어졌으니 補精이 안 되는 것이다. 가을은 燥하니 潤하게 해야하므로 上記 處方을 2제 연속 투여하여 양쪽 발의 갑갑함과 저린 것이 없어졌다.

▶ 膽石症으로 수술 받은 경우

· 이 ○○, 남자 39세

[來院日] : 2001년 10월 30일

[形色] : 膽體, 面白

[脈] 66 腎 - 三焦 心

> 膀胱 <

64 肺 - 膀胱 腎

[症狀] :

① 올 여름에 膽石症으로 담낭제거수술을 받았다.

② 7년 전에 右病左斜가 와서 好轉이 되었는데 요즘 右側 눈 밑이 많이 떨리고 右側 얼굴의 감각이 둔하다.

③ 잘 滯하고 消化가 안되어서 소화제를 자주 먹는다.

④ 속이 미식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도 결린다.

⑤ 膀胱증상이 있다.

[處方] : 柴梗半夏湯¹¹¹⁾

[考察 및 經過] : 膽石症으로 수술을 했다면 수술 그 자체를 흠으로 봐야 한다. 가슴에 痰熱이 있어 運行이 안되어 온 것이므로 柴梗半夏湯을 쓴다. 이 藥은 膽石이 있을 때도 쓰지만 담석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도 쓴다. 수술은 했지만 병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柴梗半夏湯이 담낭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즉, 담낭대신에 清血作用을 한다. 이 환자는 藥을 服用한 지 하루만에 효과가 나타나 消化가 잘되고 右側 얼굴이 편해지고 눈 밑이 떨리는 것이 없어졌다.

▶ 귀를 수술한 경우

· 김 ○○, 여자 58세

[來院日] : 2001년 10월 11일

[形色] : 膀胱體, 黑

[脈] 78 胞 - 胃 心

> 膀胱 <

78 脾 - 小腸 腎

[症狀]

① 귀에 진물이 나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好轉되지 않았다.

② 양손이 시리고 저리며 아프다.

③ 허리 다리가 좋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다.

④ 현재 감기기가 조금 있으며 가끔 上熱感이 있다.

[處方] : 聰耳湯¹¹²⁾

[考察] : 사람의 耳目이 月의 바탕과 같아서 반드시 日光을 받음으로써 밝듯이 耳目도 또한 陽氣의 힘을 빌어 비로소 聰明하게 된다¹¹³⁾. 四肢는 諸陽의 根本이 된다. 耳目을 좋게 하는 것은 陽氣를 좋게 하는 것이므로 양손의 麻木이 좋아질 것이다.

[經過] : 10월 29일 來院하여 양손의 麻木感이 없어지고 귀에 진물이 나지 않고 소리도 전보다 잘 들려 問診하기가 훨씬 편하였다. 聰耳湯을 1제 더 투여함.

결 론

麻木은 單獨症狀으로 오기도 하나 臨床에서는 주로 여러 疾病중 一個 症狀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麻木疾患의 症狀과 原因을 文獻의 考察하고 形象醫學의 觀點에 立脚하여 臨床例를 經상에 따른 분류와 病因에 따른 分類로 區分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膽體는 血虛有火로 麻木疾患이 생기며 주로 補精, 補血하는

107) 國譯增補東醫寶鑑, p. 152

108) 國譯增補東醫寶鑑, p. 644

109) 國譯增補東醫寶鑑, p. 131

110) 國譯增補東醫寶鑑, p. 365

111) 國譯增補東醫寶鑑, p. 344

112) 國譯增補東醫寶鑑, p. 285

113) 國譯增補東醫寶鑑, p. 281

治法을 쓰며 膀胱體는 氣虛濕痰으로 麻木疾患이 發生하며 주로 補氣除濕하는 治法을 쓴다. 精氣神血에서는 精科, 血科는 虛證이 오기 쉬우므로 補精, 補血, 補氣하는 治法을 쓰며 氣科, 神科는 鬱滯에 起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行氣, 解鬱, 化痰, 降火, 消導하는 治法을 쓴다. 특히, 氣科는 散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氣가 鬱滯하여 麻木이 많이 發生한다. 男女老少에서는 주로 老人과 女子에서 麻木이 많이 發生하는데 老人은 老化로 인하여 血虛와 元氣가 不足하여 營衛가 運行되지 않아 麻木이 많이 發生하고, 女子는 七情六鬱로 인해서 經絡의 氣가 滯해서 麻木이 많이 發生한다. 五臟六腑에서는 五臟六腑의 不和로 寒熱虛實이 調節되지 않아 麻木이 오는데 특히 脾虛證으로 많이 發生한다. 外形에서는 특정부위에 麻木이 나타나면 그 소속부위와 連繫된 臟腑, 經絡을 살펴 治療에 臨해야 한다. 六經形은 氣血의 偏差로 인하여 風寒暑濕燥火가 각각 그 발달된 經絡을 따라 人體에 侵入하여 麻木이 發生한다. 麻木은 內傷, 痰火, 積聚등의 內因性으로 인해 發生하기도 하고 風寒暑濕燥火를 排除하지 못해 外因性으로 發生하기도 한다. 手術을 받아 營衛가 運行되지 않아 發生하는 麻木은 그 手術받은 부위의 상관관계를 따라 治療에 임해야 한다. 특히 腹部的 手術은 腹部律動에 문제를 일으키므로 麻木이 많이 發生한다. 腹部的 律動이 안 된다는 것은 經絡이 나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麻木疾患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形色이 다르고 臟腑도 같지 않으니 形色脈症에 따라 治法과 處方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疾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形色脈症의 合一을 통해 病理를 추구하고, 處方을 運用해야 함이 重要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慶山大學校 韓醫學部 第8期 卒業準備委員會, 痺證(關節系疾患).
2. 金完熙, 崔達永 共編,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0.
3. 大韓傳統韓醫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集, 1999.
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 VII, 芝山出版社. 서울.
5. 大韓形象學會, 形象學會報 第1號, 2001.
6. 東醫寶鑑國譯委員會 編譯,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7.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1999.
8. 朴炳烈 編譯, 東洋醫學概論, 대구, 韓林院, 1987.
9.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93.
10.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3.
11. 安和中, 古今實驗方, 서울, 杏林書院.
12. 醫部全錄, 中國, 藝文印書館印行.
13. 李 梈,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8.
14. 李鳳教 編譯, 症狀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1990.
15. 蔡仁植, 韓方臨床學, 서울, 大星文化社, 1987.
16. 崔昇勳 著, 內經病理學, 서울, 통나무, 1993.
17. 崔昇勳의 2인 編著,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18. 形象醫學會, 形象醫學會誌, 2000.
19. 形象醫學會, 形象醫學會誌, 2001.
20. 洪淳昇, 洪家定診秘傳, 서울, 大星文化社. 1990.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1.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1.